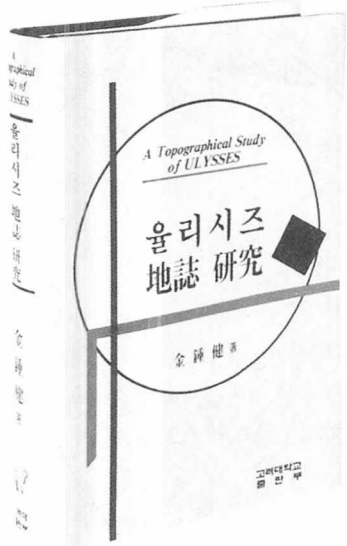


조이스 '의식흐름' 따라 더블린을 걷다

김종건 지음 《율리시즈 지지연구》



제임스 조이스 연구에 반평생을 쏟아부은 김종건 교수(62, 고려대·영문학)가 이번에는 《율리시즈 지지연구》(고려대 출판부)를 펴냈다. 지지(地誌, topography)란 어떤 지역의 자연·사회·문화 같은 지리적 현상을 기술하여 그 지역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 책은 조이스의 소설 《율리시즈》의 배경을 이루는 더블린시의 지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한 차원 높게 《율리시즈》를 이해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블룸의 날’ 재현행사

《율리시즈》는 더블린에 사는 중년의 유대인 광고업자 레오폴드 블룸의 하루동안의 행적을 《오디세이》의 틀에 맞춰 묘사한 조이스의 대표작이다. ‘블룸의 날’로 명명된 6월 16일이 오면, 많은 조이스 애호가와 더블린 시민이 1904년 6월 16일 블룸과 소설의 앞부분에서 비중있게 다뤄지는 스티븐 디들러스의 행적을 재현하는 행사를 벌인다.

‘의식의 흐름’이라는 독특한 소설 기법에 가려 있지만, 《율리시즈》는 사실주의를 따르는 소설이다. 고전극의 삼일치가 연상될 정도로, 장소와 시간은 물론이고 작중인물도 실존인물을 그대로 빌려온 경우가 많다. 그런 까닭에 소설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 더블린 시민들 사이에서는 “너도 거기(《율리시즈》)에 들어있니?” 하는 것이 인사말이 될 정도였다. 벽 물리건의 모델이 된 조이스의 친구 고가트리는 자신을 악의적으로 묘사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제기했다는 일화

이 책은 《율리시즈》의 배경을 이루는 더블린시의 지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한 차원 높게 《율리시즈》를 이해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도 있다.

《율리시즈 지지 연구》는 6월 16일 오전 8시에서 이튿날 새벽 2시까지 두명의 주인공 블룸과 디들러스의 궤적을 《율리시즈》에 있는 그대로 밟아나간다. 제1장의 무대인 샌디코브해안의 마르텔로 탑을 묘사하는 것으로 《...지지 연구》는 시작된다. 79년 조이스 박물관으로 용도변경된 마르텔로 탑은 원래 외침을 막기 위해 세운 요새탑. 《율리시즈》의 첫장인 텔레마쿠스 이야기는 이 탑을 배경으로 아침 활동과 스티븐 디들러스와 그의 벗들이 하루를 준비하는 동안 디들러스의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다룬다.

제9장은 국립도서관이 무대이다. 디들러스는 여기서 도서관 직원들과 《햄릿》에 관한 토론을 벌인다. 국립도서관은 킬데어가 9번지에 있다. 킬데어가의 출입문을 통과해 현관을 지나 층계를 오르면, 도서관 장면이 등장하는 도서관장 라이스터의 기념명판이 눈에 들어온다. 카운터 뒤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디들러스가 토론을 벌인 라이스터의 관장실이 나온다.

지지연구는 텍스트만으로는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명해준다. 사물과 지형은 의식의 흐름의 근원이 된다. 블룸이 거쳐간 현장답사를 통해 블룸이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실마리를 찾는 것이 지지연구인 셈이다.

‘조이스읽기’의 이해

“제임스 조이스는 모더니즘의 중심이다. 조이스는 현실을 고발하면서 작품 속에 내일의 밝은 비전을 제시한다. 예술을 통해 희망을 전하려 했다.”

김교수가 본 영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조이스의 위치이다. 희망의 메시지와 관련해 부각되는 요소가 조이스 문학의 해학성. 실험

적 기법에 가려 간과된 덕목이다. 조이스 문학, 특히 《율리시즈》는 난해하다는 하소연의 대상이다. 이에 대한 반증으로 김교수는 두가지 예를 들었다.

아일랜드 국영방송국이 제작한 《율리시즈》 오디오북이 방송을 타면 민중들이 배꼽을 잡고 웃는다는 것. 애로우 출판사가 최근 펴낸 배우 마릴린 먼로의 전기에는 《율리시즈》를 읽고 있는 먼로의 소녀적 사진이 실려 있다. 그녀가 읽고 있는 곳은 성에 대해 농밀하게 묘사한 뒷부분. 이것 때문에 《율리시즈》는 음란 혐의를 받기도 했다.

조이스는 다작의 작가는 아니다. 네 개의

작품을 남겼는데 《더블린 사람들》《젊은 예술가의 초상》《율리시즈》《피네간의 경야》가 그것. 네 개의 작품은 각기 독립적이면서 우주적인 하나의 체계를 이룬다. 어느 한 작품이라도 빼놓으면 조이스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조이스 읽기는 《더블린 사람들》부터 차례로 읽어 나가는 것이 좋다. 조이스 문학의 체계적인 구성원리는 물리학자 M. 겔만이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설입자를 ‘쿼크(quark)’라고 이름지은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쿼크는 《피네간의 경야》에서 따온 것이다.

—최성일 기자

저자 얼굴

즐겁기만 했던 나그네의 여로

《율리시즈 지지 연구》 펴낸 김종건 교수

김종건 교수는 《율리시즈 지지 연구》를 위해 73년 이래 아일랜드를 여덟번이나 다녀왔다. 뒷골목을 그곳 사람보다 더 많이 안다는 찬탄을 들을 정도로 더블린 지리에 환하다. 조이스 관련 사진집은 십여종이 나와 있는데 수록 사진은 수십장에 불과하다. 그러나 구석구석을 발로 답사하며 김교수가 찍은 사진은 1천여장에 달한다. 이 가운데 270장의 사진을 실었고, 40장의 지도도 직접 그렸다.

제임스 조이스 연구는 김교수의 필생의 사업이다. 조이스의 네 작품에 대한 번역, 《율리시즈 주석본》, 그리고 조이스의 작품에 대한 연구서와 논문 쓰기를 꾸준히 해왔다.

“그는 언어의 천재다. 셰익스피어가 남긴 37개 작품에 사용된 어휘가 2만여 단어인데 비해, 조이스는 《율리시즈》에서만 29,899 단어를 사용했다. 문체 면에서도 다른 작가의 문체를 수용해 ‘문체의 박물관’으로 불린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분석 대상이 되는 ‘동시대’ 작가이다.”

조이스는 그의 조국 아일랜드에서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다. 관광국에서 발행한 지도에는 《율리시즈》 관련 명소가 친절하게 안내되어 있기도 하다. 더블린 시내



김종건교수.

곳곳에 《율리시즈》의 무대임을 알리는 100여개의 동판을 만들어 놓았다고 김교수는 전한다.

조이스의 작품들이 좀더 대중적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김교수는 “많이 읽고 고정관념을 깨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율리시즈》가 보기도문 ‘외설’소설이라고도 귀찮았다.

“일반인이 조이스 문학에 쉽게 다가올 수 있게끔 다탁본(茶卓本) 사진첩과 《율리시즈》를 축약해 맛보기로 보여주는 《김종건의 율리시즈 이야기》를 펴낼 계획이다.” 설립 때부터 줄곧 회장직을 맡고 있는 ‘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의 일에도 더욱 힘을 생각이다.

—최성일 기자